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1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2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3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4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뵈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1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함께 가려네
예수함께 아니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2 세상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롬없겠네
가는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함께 가려네

3 어둔 그늘 나를 에워 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후렴 어디를 가든지 겁낼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함께 가려네

9월 21일(금) 기도 담당 : 정준수 집사

2018년 9월 20일(목)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433장 ····· 다 같 이
기 도 ····· 한상열 집사
성 경 봉 독 ····· 창세기 27:41-28:5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 **전혀 낯선 삶의 자리로 떠밀려 가다**』····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440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9월 18일(화)	창 26:13~33	속고 빼앗기고 쫓겨나는 삶에 숨은 축복
9월 19일(수)	창 27:1~29	분별하지 못하고 내린 축복은 유효한가?
9월 20일(목)	창 27:41-28:5	전혀 낯선 삶의 자리로 떠밀려 가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9월 20일 (목)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비록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손에 쥐었지만 그 날로부터 그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상하게도 여기지도, 염려하지도 말고 늘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꾸려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부모님들께 복을 주시어, 부모님들의 인생 말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육간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신앙, 학업, 직장, 결혼, 출산의 일들을 친히 주관하셔서, 자녀들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의 자리에 예고없이 닥치는 건강, 경제, 기타 각양의 곤고함들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131년의 유구한 역사동안 저희 새문안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 이제 새 성전건축을 통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새 성전이 완공되는 그 날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매순간마다 안보하여 주옵소서. 온 교인들이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봉헌하게 하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우들의 삶을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코트디부아르로 떠난 의료선교부원들의 발걸음을 친히 주관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준비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명하신 하나님! 복음에 빚진 자인 저희 교회가 이방 각국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기꺼이 그 빚 갚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행하시는 사역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을 구합니다.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애국심을 허락하시며, 모든 국민들은 성실과 진실함으로 각 자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대북관계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송축받을 결과가 도출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 6만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새롭게 깨어나 이 땅을 밝히는 등불되게 하시며, 평화적 통일의 주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